

성남문화재단 세계문화클럽포럼 개최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클럽축제 개막일인 15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세계문화클럽포럼(WCCF : World Culture Clubs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 포럼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불가리아 등 해외 5개국의 자발전 시민 예술 활동과 정책 ▶국내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예술 현황과 사랑방문화클럽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성남문화재단 정책 및 성과 ▶시민문화예술활동의 발전 방향 및 국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영국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역사와 현황, 정부의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영국 VAN(Voluntary Arts Network)의 로빈 심슨(Robin Simpson)을 비롯해 일본 시즈오카 현의 ‘국민문화제’ 추진실 대외협력 담당 나카다이 히로미(Nakadai Hiromi), 미국 아메리카 중부 예술연합 공연 예술분과장인 돈 아담스(Don Adams), 독일의 안드레아스 캠프(Andreas Kaempf), 불가리아 국제 문화센터 협회 나즈데다 사보바(Nadezhda Savova) 대표 등이 발제한다.

또 국내 발표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수환 교수와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이 선다.

일반인 참가 신청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sncf.or.kr)에 공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350명에 한해 동시통역기와 자료집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06년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에서 발굴한 1천103개의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중 120여개의 핵심 동호회들을 연계시켜 지역사회 문화 공헌사업을 기획 및 참여시키는 것이다. 문의 : 031-783-8127. 류설아기

자/rsa119@joongboo.com